광양시 5년 후엔 '녹색전원도시'로

2190억 예산 투입 '그랜드 프로젝트' 가동

백운산 중심으로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

광양시가 '남해안 선벨트 남중권중심도시'로서 '녹색전원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청사진을 마련했다.

광양시는 최근 내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219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9대 전략과제·65개 단위사업을 추진하는 '그린(Green)광양 그랜드(Grand)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8월부터 우동근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민·관·학·연 등 19명으로 구성된 TF(태스크포스)를 운영에 나섰다.

◇기후환경변화 대비 산림녹화= 시는 950여 종의 다양한 자생식물과 650여 종의 약용식물이 분포하고 있는 백운산을 중심으로 식물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을 육성해 고부가가치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산림문화·휴양시설을 확충해 '녹색전원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프로젝트의 전략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기후환경변화에 대응한 산림녹화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광양의 명산인 서산과 가야산, 망덕산, 구봉산 등에 대해 난대성 기후에 알맞은 수종을 선택·식재해 휴양 숲으로 조성한다. 태인동 삼봉산과 산업단지 및 광양만권 주변은 공해에 강한 환경림으로 대체 또는 식재해 탄소 흡수원을 확충해 나간다.

산림문화·휴양수요의 증가추세에 맞춰 휴양 및 치유문화 활동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백운산 둘레길'(70㎞) 조성 ▲백운산 멘탈클리닉(치유의 숲) 센터 건립 ▲치유의 숲 민간시범사업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 ▲산림박물관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토종다래·백운배 등 새로운 산림 소득사업을 전개하고 '백운산 식물자원 연구소' 건립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미래산업 육성과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선다.

◇도시환경 공동체의식 함양= 이와 함께 시민·사회단체의 산림 및 도시녹화사업에 자율적인 참여를 통해 도시환경에 대한 공동체의식 함양은 물론 광양읍 인덕천을 중심으로 하천과 녹지 축의 8대 연결녹지 벨트를 조성하고 다압~진상~옥룡을 연결하는 '철 따라 계절감 느끼는 둘레길'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산림내 유·무형 자원을 활용한 역사와 지형·지명·풍수·전설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 스토리텔링화하고 ▲스토리텔링 안내판설치 ▲스토리텔링 대회 개최 ▲스토리텔링을 통한 산림 8경을 선정해 관광자원화할 방침이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그랜드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다시 오고 싶고, 살고 싶은, 자연과 함께 숨 쉬는 건강한 녹색 전원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

주암호 상류 甘菊 재배농 '웃음꽃'

〈감국〉

안개피해 쌀·과수농사 대체

웰빙열풍 힘입어 소득 짭짤

화장품·음료 등 상품개발도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마을주민이 음용차로 수요가 늘고 있는 감국을 채취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kwangju.co.kr

보성에서 쌀 대체작물로 야생화를 키워 농가소득을 창출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요즘 주암호 상류에 자리한 보성군 문덕면 봉갑리 일대는 황금물결을 이루고 있다. 6만6000여㎡에 달하는 너른 들녘에 노란 빛깔의 토종 약용식물인 감국(甘菊)이 활짝 피어 있기 때문이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아 농부와 노란 빛깔이 어우러지는 그림 같은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봉갑리 마을주민들은 댐 건설 이후 발생하는 안개 때문에 과수농사를 포기하는 등 농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해 말 주민과 보성군·영산강유역환경청·한국수자원공사 주암댐관리단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댄 끝에 선택한 작물은 안개와 궁합이 잘 맞는 감국이었다.

봉갑리 감국단지는 잦은 안개 발생으로 인해 오히려 국화류에 자주 발생하는 진딧물이 끼지 않아 농약을 칠 필요가 없는데다 화학비료·퇴비까지도 사용하지 않는 순수 자연농법으로 재배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받고 있다. 더욱이 웰빙열풍에 힘입어 감국차가 수험생과 직장인에게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벌써부터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소득작목으로 접목시킨 1년만인 11월 현재 1억5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용신 보성 약용식물사업단장은 "벼 대체작물로 선택한 약용식물 감국은 한약재와 음용차(茶)로서 효용가치가 뛰어나다"며 "앞으로 한약재와 정유(精油)·화장품·음료 등 상품개발 여지가 무궁무진하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선상근기자 sun@

꼬막 캐고… 꼬막 까고… 꼬막 맛보고

5~7일 '벌교꼬막축제'

대하소설 '태백산맥'무대이자 꼬막의 주산지인 보성군 벌교에서 꼬막축제가 열린다.

벌교꼬막축제 추진위원회(회장 이동현)는 5~7일 3일간 벌교 제일고 특설무대와 대포리 개펄 체험장 일원에서 '제9회 벌교꼬막축제'를 개최한다.

'숨 쉬는 벌교 愛 희망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꼬막캐기·꼬막까기·꼬막 삶고 시식하기 등 다채로운 꼬막 체험행사와 소설 '태백산맥'의 무대를 가족과 함께 문학기행할 수 있는 테마축제로 마련된다.

주요행사로는 5일에는 벌교 제일고에서 농악놀이를 시작으로 꼬막노래자랑·대형꼬막 화합 비빔밥 만들기, 6일에는 국악마당·꼬막까기 경연·소설 '태백산맥' 작가와의 만남·어린이 국악잔치 등이 열린다.

마지막 날인 7일에는 개펄이 드넓게 펼쳐진 대포리에서 널배타기와 꼬막잡기 등 다양한 개펄 체험행사와 태백산맥 문학기행·진혼제·청소년 페스티벌·어울림 한마당 행사가 진행된다.

특히 '작가 조정래와 함께 태백산맥 속으로'를 테마로 작가가 직접 참여하는 제석산산행과 작가와의 만남의 시간, 태백산맥 문학기행, 진혼제, 팬 사인회 등도 열린다.

한편 벌교꼬막은 지난해 2월 '수산물 지리적 표시' 제1호에 등록됐다.

/동부취재본부=김윤성기자 kim0686

김우진 선생의 문학정신 공유한다

목포서 5~6일 '문학제'

일제강점기 극작가·비평가인 수산(水山) 김우진(1897~1926) 선생을 기리는 문학제가 열린다.

목포시와 김우진연구회(회장 한옥근)는 5~6일 이틀간 목포문학관에서 '제3회 김우진 문학제'를 개최한다.

이번 문학제는 '김우진 문학의 새로운 구상'이라는 주제 아래 기조강연과 학술발표대회를 비롯해 축하공연·전국 백일장대회·장학금수여식·유족과의 대화· 문학 영상자료전 등이 준비됐다.

김우진 선생은 목포에 거주하면서 동시대 서구문학계의 수준에서 극문학을 본격적으로 연구하며 '난파', '산돼지', '두더기 시인의 환멸' 등과 같은 실험적인 희곡을 창작한 극작가이자 '이광수류의 문학을 매장하라' 등과 같은 주목받는 평론 20여 편을 써낸 평론가이며, 서정시 50여편을 창작한 시인이기도 하다.

특히 목포 근대문학기 최초로 순수문학 동호회인'Societe Mai'(오월회)를 결성해 예향(藝鄕)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한옥근 연구회장은 "전국 최초로 본격적인 극문학자 연구회로 창립된 '김우진연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 김우진 선생에 관련한 자료들을 더욱 발굴해야 한다" 며 "김우진 선생의 문학정신을 지역사회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실천적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광양시청 유종기팀장

'민원봉사대상' 본상 수상

광양시청 보건행정과 유종기 팀장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의 '제14회 민원봉사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다.

유팀장은 30여 년간 일선 민원현장에서 근무해오면서 지난 2006년 시청 봉사단체인 '작은 봉사회'를 창립, 장애인 등을 초청해 휠체어 이동봉사를 하는 등 대민봉사를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민원봉사 대상'은 매년 일선 현장에서 국민에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민원행정 발전에 이바지한 지방공무원과 농협직원을 발굴해 표창하는 상으로, 1997년 첫 시상 이래 올해까지 14차례에 걸쳐 246명이 수상했다. /동부취재본부=안수득기자 70su@

해남 '황토인삼' 품질도 인기도 최고

올 180t 수확 72억 소득… 홍삼용으로 적합

해남군 인삼재배 농민들이 황금빛 '황토 인삼'을 수확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해남 '황토 인삼'이 최고품질로 인정받으면서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해남군은 "올해 30농가가 27.3ha의 황토밭에서 6년근 인삼 180여t을 수확, 72억원의 소득이 예상된다"고 3일 밝혔다.

이달 중순까지 수확하는 인삼은 전량 인삼공사와 계약재배해 10a당 수입이 2400만원이 넘는 고소득작목으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특히 해남 인삼에 대한 시장 선호도도 매우 높아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에 비해 1.5배 높은 가격에 팔리는 등 전국 최고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이는 충남 금산과 전북 진안, 경기도 강화 등 기존 주 생산지가 논 인삼을 주종으로 하는 데 비해 해남 인삼은 풍부한 영양성분을 가진 황토밭에서 재배돼 '사포닌' 성분과 탄수화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으며, 조직이 치밀하고 외관이 깨끗해 홍삼 제조용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연작장애가 심한 인삼의 특성상 해남은 인삼을 재배하기 시작한 지 15년 정도인 신생 재배지로 발전 가능성이 매우 큰 지역으로 꼽히고 있다.

게다가 바다와 인접한 해양성 기후로 인삼 생육에 필요한 20도 이상 기간이 금산 등에 비해 한 달 이상 길어 고품질 우량 삼을 생산할 수 있는 것도 강점으로 꼽히고 있다.

해남 인삼연구회 천희구(53) 회장은 "인삼 재배지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현재 시장수요는 정체상태지만 해남인삼만은 다른 지역보다 높은 가격에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판로를 확보하고 있다"며 "황토에서 자란 인삼은 황금빛을 띠어 소비자들의 인기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공 장 매 매

•위 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대 지•
6,345㎡(1,920평)
•건 물•
1,685㎡(510평)
•전 기•
계약전력 200㎾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가동중

핸드폰 : 011-612-2823
이메일 : diid71@hanmail.net

호남랜드공인중개사

쌍촌동 나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1,845㎡.(558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3.3 ㎡당 160만원. 도시형생활주택,종교시설. 요양원적지.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쌍촌동 2차선도로 나대지
서구 쌍촌동 2차선도로변 나대지 513㎡(155평). 제2종일반주거지역매매가 3.3㎡당 235만원. 카센타. 식당. 업무용빌딩 적합.
상무지구 나대지(업무용지)
상무지구 시청앞 부근 20m 도로접함. 993㎡(300평). 매매가 18억. 회사사옥. 업무용빌딩.
나주 문평전원주택지
나주시 문평면 저수지옆 2,596㎡. 3.3㎡당 60,000원. 광주시청에서 25분거리 2차선포장도로 접함. 저수지 조망 양호. 농림지역. 전원주택적합.
건물매매(오치동)
오치동 주공아파트앞 대로변 대지298㎡(90평).연면적875㎡(265평)지하1.지상5층. 보증금9200만원.월 675만원.매매가 10억.
상무지구 시청앞 LH공사광주전남지사옆
010-3616-8698. 062-233-2222

믿음 공인중개사

첨단지구 중심상업지역
토지: 1200평 1000평 700평 500평 300평 268평 250평 200평 196평 134평 100평매물(다량보유)
첨단지구
상가건물매도 매도가 5억3천, 9억5천, 10억, 13억, 14억5천, 31억, 55억0억 78억(다량보유)
구함:첨단산단, 하남산단, 평동산단 공장 및 공장부지
구함:광주 첨단지구 인근지역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공장: 하남공단, 평동공단, 첨단산단, 매매, 임대 전문
매매, 임대, 다수 보유하고 있음
첨단인근지역
진곡, 임곡, 동아면 남면, 진원면, 대치, 수북면
(전원주택, 전원주택지, 생산, 자연녹지,있음)
첨단지구: 상가건물, 모텔, 무인텔, 매도 (다수보유)
첨단지역에서 오랜 전통있는 저희 업소에 방문하여 주시면 믿음 소망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T. 971-4911 / H.011-627-0876
(첨단 세종문고 건너 쌍둥이 빌딩 1층)

신진공인중개사(임대전문)

대불산단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 15.000평
▶건 물 : 9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장성동화 공장매매(임대가능)
▶공장용지 : 2400평(계획관리)
▶건 물 : 580평(동력200k)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남구 송하동 토지매매
▶대 지 : 1500평(6차선 도로접)(700평)
▶자연녹지 : 700평 ▶일반공업지역 : 8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북구 동림동 토지매매
▶대 지 : ①500평 ②1200평
▶준주거지역(동림2지구 건너편)
▶건 물 : ①상가 30평, 창고80평
②상가 200평 공장200평
▶매매가격 : 협의후 결정
광산구 월전동 토지매매
▶대 지 : 2000평(생산녹지지역)
▶6차선 도로변(공장, 물류창고, 차고지 등)
▶매매가격 : 17억원 (건물 600평 포함)
문의:☎ 016-644-4265, FAX.523-8558

금당 공인중개사

■감정가 이하
• 광산구 신촌동 계획도로접 주거지역 2160평 공시지가 4억9600 매도 3억8천
• 주유소 광산구 땅 491평 융자 5억 교환가능 10억
• 금남로4가 8층건물 상업지 대지776㎡(235평) 건평 862평 경매 감저가 31억6천 사옥임대업·요양시설등 적합 14억
• 금남로5가 대지503㎡ 152평 공시지가 4억3천 매도4억8천
• 주택 동구 지산동 대지 40평 공시지가 5850만원 매도 4300만원
• 신안동 상업지 310㎡(94) 공시가 3억천 매도 2억4천
• 마륵동 자연녹지, 대지 574평 공시지가 5억 매도 5억3천
• 대지, 두암동 소방도로접 275㎡(83평) 1억5백
• 양동모텔 대지 388㎡(117평) 건평 986㎡(298평) 요양복지 시설등 적합 공시지가 매도 3억7천
• 북동 6차선 도로 대지 55 건평 206평 6층 건물 5억
• 화정동 6차선 도로 대지 135건평 173 대출 3억 매도 6억
• 원룸 건물 광주역앞 대지 108 건평 383평 감정 11억 8천 대출2억 5천전세 9천 월 650 매도 6억7천
■매도·교환
• 송정동 4차선 도로변 2종주거지 856평 공시지가 13억8천 매도16억 2천
• 두암타운 4차선도로 195평 교회, 병원, 학원등 적합 평당 370만원
• 함평군 해보면 (문장입구) 4차선 도로변 관리지역 550평 창고·식당·공장등 다용도 1억9300만원
• 생산녹지 창고 등 다용도 광산구 비아 2722평 13억
• 충효동 유실수 있는 답 575평 대지 10평포함 1억3천
• 북구 충효동 대지 147평 전원주택 적합 7900만원
• 생산녹지 서구 덕흥동 1602평 공시지가 6억3천 매도 9억천만원
• 자연녹지 706평 매월동 서광주역 부근 매도 9억9천만원
• 화순군 능주면 소재지 주택 대지 100평 수리해야함. 1900만원
• 화순군 한천면 임야 13,862평 공장 등 다용도 평당12000원
• 서구 유촌동 생산녹지 1631 평과 창고, 공시지가 14억 3천 창고는 1년 사글세 2200만원에 임대중임 22억 5천만원
• 원룸건물 화정동 대지 91평 건평 145평 원룸 10개 투룸 3개 쓰리룸 2개 주택있고 전세 1억천 월380 매도 5억3천 주택은 주인이 사용
• 별장부지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자연녹지 562평 유자나무 귤나무 많은땅 매도 1억 2400만원
• 투자 함평군 나산면 삼축리 관저지역 저1688평 함게 있는 국유지 2300평도사용 1억5백
T. 222-4994, 010-2632-5659, 011-782-6266
(동구 금남로 5가 123-6, 우리은행 4거리 1층)